

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티큐브

면역항암제 위탁개발 '맞손'

면역관문억제제 신약후보물질
삼바, 전반적인 개발 서비스
2021년 임상1상 연구 목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스티큐브가 면역관문억제제 신약 후보물질인 'ST T-003 항체'에 대한 위탁개발(CDO)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면역관문억제제는 암세포의 면역반응 회피신호를 억제해 면역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약물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STT-003 항체'의 세포주 개발에서부터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 및 임상 시험계획(IND) 제출에 이르는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임상 및 비임상용 물질을 생산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CDO 분야 진출을 선언 후 현재까지 총 47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빠르게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한 양사의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초기 논의 단계부터 계약체결 완료까지 단 2주가 소요됐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에스티큐브의 연구개발(R&D)센터에서 발굴한 'STT-003 항체'는 다국적 제약사와 물질이전계약(MTA)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해온 면역관문억제제 신약 후보물질이다.

에스티큐브 연구진은 STT-003이 면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바이오투입센터

역세포와 암세포의 표면에 광범위하게 발현돼 면역기능을 억제하는 새로운 면역관문 물질임을 확인했다. 특히 STT-003은 다양한 암세포에서 PD-L1 보다 높게 발현돼 'STT-003 항체'의 항암 효과가 기존 항암 치료제인 'PD-1/PD-L1 항체' 보다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티큐브는 'STT-003 항체'의 단독요법뿐 아니라 병용요법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글로벌 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미국 MD앤더슨암센터 등 유수의 의료기관들과도 'STT-003 항체'에 대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에스티큐브 정현진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혁신신약 'STT-003 항체'에 대한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글로벌 임상시험 추진 기

반을 마련했다"며 "2021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STT-003 항체'의 임상 1상 연구는 MD앤더슨암센터 임상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면역관문억제제 분야의 임상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RO(위탁연구), CDO, CMO(위탁생산)의 일괄 공급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바이오벤처들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본업인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개발, 생산 역량과 높은 경쟁력을 갖춘 에스티큐브의 후보물질의 만남을 통해 신약개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미약품, 진통소염제 '낙소졸' 유효성·안전성 글로벌서 입증

임상 4상 美 국제학술지에 등재

한미약품 진통·소염 복합신약 낙소졸의 임상 4상 결과가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국제학술지 'PLOS ONE'에 등재됐다.

PLOS ONE은 2004년부터 간행된 글로벌 학술지로, 세계 207개국에서 발간된 219개 연구 영역의 논문 20만여건이 등재돼 있다.

이번에 등재된 임상 4상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성환 교수(정형외과)가 책임연구자를 맡았으며, 국내 8개 센터에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로 진행됐다. 한국인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범용적인 진통·염 단일제 셀레콕시브(Celecoxib)와 낙소졸을 비교해 12주간 위장관 증상 예방효과(LDQ, GSRS), 통증 개선효과(VAS), 삶의 질(EQ-5D), 안전성 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낙소졸 투여군이 셀레콕시브 투여군 대비 모든 평가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동등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였다. 우수한 진통·소염 효과와 위장관 부작용 조절 효과도 확인됐다.



한미약품 본사.

또 낙소졸에는 한미약품만의 차별화된 제제기술이 함축돼 있다. 낙소졸에는 방출지연, 차광 등 기능을 가진 총 6겹의 고난이도 기능성 마이크로 코팅 기술이 적용됐다.

2013년 출시된 낙소졸은 진통·소염 복합신약으로, 관절염 통증 개선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심혈관계 위험성 및 위장관계 부작용은 낮춰 국내 의료진들과 환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 166억원(UBIST 기준)을 달성했다.

/이세경 기자

오리온 제주용암수 71t 베트남 첫 수출

제주 생산량 통해 수출길

오리온은 호치민, 하노이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 프리미엄 미네랄워터 '오리온 제주용암수(사진)'의 수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생산 법인인 오리온제주용암수는 3일 제주도 성산항에서 베트남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출물량은 총 71t으로, 오리온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활동을 개시하고 상반기 내 정식 론칭할 예정이다.

오리온제주용암수의 첫 수출은 서귀포시 성산항을 통해 이뤄지고, 제주에 기반을 둔 운송사, 하역사, 해운선사 등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크다. 오리온 측은 이번 수출이 향후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530ml, 2l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명수와 견줄 풍부한 미네랄과 제주도의 청정한 이미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아름다운 패키지는 오리온 제주용암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미네랄워터 이미지를 강화하고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대웅, 2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전체 발행 주식의 3.4% 규모 매입



대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식 197만444주(약 200억원)를 매입한다고 2일 공시했다. 매입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4% 규모다.

윤재춘 대웅대표는 "자사주식 가격 안정 도모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며 "대웅은 자회사인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및 손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 등의 성장에 힘입어 건실한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2019년 대웅의 연결 매출은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등 자회사의 매출 성장으로 전년 대비 약 11% 성장한 1조 3657억원 규모였다. 특히 대웅제약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고른 성장과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독신 제품의 미국 수출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별도 매출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독신 제품의 유럽 출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스프라잔'의 국내 허가 등 글로벌 매출 증대와 함께 연구

개발(R&D) 부문에서의 개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PRS저해제), SGLT-2 당뇨병 치료제 등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툴리눔독신 제품의 중국 미용시장과 글로벌 치료시장 공략을 통해 세계 시장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웅은 지난 해 대웅제약이 매출 증대와 신약 파이프라인 등 지속성장 가능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점에서 자회사의 주식을 6만510주(약 100억원)를 매입해 자회사의 지분을 확대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보령홀딩스 대구 의료진에 마스크·체온계 등 기부

보령홀딩스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대구에서 감염 확산 차단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보령컨슈머 '5why KF94 마스크' 3만장과 '비접촉식 체온계' 300개를 기부했다. 기부한 물품은 대구광역시의회를 통해 일선 의료진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보령홀딩스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진료에 필요한 의료용품 기부를 결정했다. 또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의료진들에 대한 따뜻한 응원이 이어져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 의료진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의사 단체들과 SNS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는 의료진에게 따뜻한 응원과 함께 진료 용품을 전달하자는 응원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이세경 기자

맘스터치 온라인몰서 패키지상품 할인 이벤트

맘스터치 온라인 브랜드 샵 '맘스터치몰'은 오는 31일까지 '이불 밖은 위험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할인 패키지 상품은 맘스터치 몰 인기 메뉴 '데일리 맘스터치 도시락'과 '맘담'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구성됐다. 집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챙길 수 있도록 품목 및 개수에 따라 '6DAY 하루 세 끼' '3DAY 하루 두 끼' 등 총 6가지로 구성됐으며 전 패키지 33% 할인 판매한다.

/김민지 기자

신세계푸드 자니로켓 '치즈에 풍덩' 딥 치즈 버거 2종

신세계푸드 자니로켓은 핑 치즈 버거를 치즈 소스에 찍어먹는 '딥 치즈 싱글', '딥 치즈 더블' 등 신메뉴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신메뉴 2종은 육즙 가득한 비프 패티, 바삭한 어니언 링, 고소한 체다 치즈가 어우러져 독특한 비주얼과 함께 풍성한 맛



성된 스페셜 세트를 2000원 할인한 1만 4300원에 판매한다.

/김민지 기자